

‘학교폭력의 유형과 사례’ 알아보기



학교폭력 유형

유형	예시상황
신체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방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언어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갈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강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따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사이버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칭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성희롱,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음란물 유통, 대화명 테러, 인증놀이, 게 임부주 강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학생들의 문화를 통한 학교폭력의 이해

1. 아이들의 문화와 폭력양상

- 짧은 매체는 장면만 존재→ 공감 능력 감소. 충동적 행동 증가
- 학교폭력 문제→문화적 부분 고려
- 문화이해→또래 집단 이해→학교폭력과 연결

2. 요즘 아이들의 문화

- 학생이 활용하는 매체를 아는 것이 중요→소통방식은 사고로 연결

3. 학생들의 매체

터미널 플랫폼(게임이나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면서 음성.문자 채팅을 주고 받는 것)

- 관심사를 나누기 위해 일정 공간에 먼저 모이는 방식의 매체
- 취미.지역.학교별 모임 후 각자의 행선지로 향함
- 터미널 플랫폼을 경유해서 게임이나 프로그램으로 넘어감
- 실시간 소통 매체로 80-90%의 학생들이 이용
- 엄청난 빠른 속도
- 대화의 맥락에 대한 이해가 터미널 플랫폼에는 없음
- 긴박하고 긴장된 순간이 최고조
- 오프라인과 가까운 소통이 가능한 매체
- 대화 맥락이 어색하면 편집의 가능성 염두
- 자극적인 영상이 너무 쉽게 노출되는 점도 매체와 관련
- 보안시스템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어 불가능
- 시스템을 우회하는 방법이 아이들끼리 공유되고 있어 성범죄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
- 음란물. 폭력물의 수위는 심화 되는 추세
- 심의 장치. 하드웨어 통제에 의한 작동 어려워짐
- 음란물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 있음
- 매체 환경변화로 사이버폭력 심각해짐
- 기존법과 제도가 따라갈 수 없는 상황으로 유연한 접근 필요
- 학교폭력의 연령이 낮아지고 다른 범죄와 연결되고 있음
- 초등교사도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범죄 대응 방법의 인지 필요
- 실제 범죄로 연결되어 학교의 힘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
- 경찰에서 안내하는 신종범죄와 수법 등에 대해서도 관심
- 최근에 개인정보 수집 후 상납하는 사건이 많아짐

* 터미널 플랫폼의 장점

1. 유대관계 형성
2. 오프라인과 가까운 소통
3. 음성. 화상 채팅 가능

* 터미널 플랫폼의 단점

1. 호흡이 빨라 파편화된 메시지
2. 폭력적 언어 사용

3. 비속어 사용. 상대방을 모욕하는 언어 사용
4. 사이버폭력. 실제 폭력으로 이어짐
5.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특정 사진 활용. 강도 높은 욕설
6. 비정상적인 메시지가 난무함
7. 죄의식 없음
8. 대화의 일부 삭제. 편집하면서 사이버폭력의 가해자, 피해자가 될 수 있음
9. 대화 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편집(학교폭력의 증거로 사용되는 걸 우려)

* 피해자

1. 트라우마
2.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
3. 평생 고통

* 가해자

1. 학교폭력 전력이 미래의 자신을 옥아매는 상황으로 발전 가능
2. 유명한 연예인의 평생 쌓아놓은 명예를 무너뜨림

- ☞ 콘텐츠 접촉 경로 파악과 충분한 소통으로 아이들 보호
- ☞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평생 영향
- ☞ 아이들의 문화 속에서 어떤 소통을 하는지 끊임없는 관심 필요
- ☞ 학생들이 사용하는 플랫폼, 소통 방식에 관해 관심

※ 잘못해서 불러온 아이가 미안해하는 표정- 훈계와 지도함-반성을 한다고 생각-교무실 밖으로 나간 후 친구들과 웃고 장난(죄책감을 느끼지 않지? 나를 무시한 건가?)

- 아이들의 문화변화
- 혼나는 순간과 친구들과 어울리는 순간은 별개의 장면으로 기억
(기승전결이 아닌 마치 짧은 영상처럼 각 장면이 별개로 인식)
- 문화적 매체의 차원에서 학생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음

[최근 사례] 카카오톡 계정 거래행위 범죄 예방 안내

최근 카카오톡 계정을 구매한다는 SNS 글을 보고 돈을 벌기 위해 친구, 선·후배 등 타인에게 카카오톡 계정을 요구하여 제공·판매하는 학교폭력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정 요구의 경우 수반된 행위에 따라 형법상 협박, 강요, 공갈 등에 해당될 수 있으며 타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무단 접속한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또한 수반행위 없이 동의하에 제공한 경우에도 형법상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사 및 상담 안내

바르게 대응하기!!

- ✓ 자신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SNS 계정 등)는 친한 친구 등 누구에게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 ✓ 친구 등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 ✓ 신중 학교폭력을 정확히 알고 피해 입지 않도록 바르게 대처합니다.
- ✓ 피해를 입은 경우 각 학교 인성인권부장 또는 학교전담경찰관과 상담합니다.

위 사례는 수반된 행위에 따라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공갈죄, 감금죄 등에 해당.
 타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무단 접속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 48조① 위반에 해당.

학 교 폭 력 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전주한산경찰서

모든 아이를 학교폭력으로부터 지키는 부모의 지혜

학부모소식지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주간(6월 3주)

발행인 김현철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7층 TEL 044-415-2401 FAX 044-415-2369

메타버스(Metaverse) 속 자녀(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학부모(보호자)의 역할

부모세대에게는 현재 살고 있는 현실 공간(Real World)은 삶의 터전이고, 삶에서 활용하는 각종 정보통신기술은 생활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나 자녀(아이)들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공간 외에도 메타버스(Metaverse) 등 정보통신기술 속 공간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자녀(아이)들은 나이, 성별, 신체, 외모 등 현실공간 속 자신의 모습은 전혀 드러내지 않으면서 스스로가 설정한 아바타의 모습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서는 성인도, 청소년도, 아동도 심지어 AI까지도 자유롭게 공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메타버스에서는 국가가 현실공간처럼 강력한 안전을 보장해줄 수 없다보니, 자녀(아이)들이 사이버폭력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녀(아이)들은 잘못된(호기로운) 행동으로 인해 또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른들의 표적이 되어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사이버 언어폭력뿐 아니라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따돌림 등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폭력이 자녀(아이)의 스마트폰 속에 기생하는 것입니다. 현실공간에서는 학부모(보호자)의 보호와 통제가 가능할 수 있지만 메타버스에서 학부모(보호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아이)들에게 메타버스는 중요한 삶의 공간이므로 무조건 금지할 수도 없습니다.



이원상 교수

조선대학교 법학과

따라서 학부모(보호자)님들은 자녀(아이)들에게 다음 세 가지는 꼭 주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첫째**, 메타버스에서 만나는 아바타들과 개인신상정보나 개인사진 및 동영상 등을 공유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범죄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장난이라도 거친 욕설을 하거나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소위 뒷담화를 조심하도록 해야 합니다. 쉽게 사이버 언어폭력에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메타버스에서 어려움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학부모(보호자)나 신뢰관계 있는 어른에게 바로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 작은 갈등이 범죄로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메타버스는 더욱 발전하고 확대될 것이므로 부모님들이 메타버스를 경험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자녀(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고, 직접경험에 따른 조언과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메타버스 속 자녀(아이)의 안전을 위해 학부모(보호자)는 메타버스 속 이방인이 아니라 원주민이 되어야 합니다.

※ 메타버스란 현실을 넘어 구현된 가상의 세계를 의미하며, 초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입니다. 메타버스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와 똑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로, 아바타를 통해 사회적 관계 형성, 가상 쇼핑 등 편리하고 다채롭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가상세계 속 다양한 말이나 글을 통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등의 사이버폭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최근 일어나는 사이버폭력에 대해 알아볼까요?

초·중·고(초4~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부의 '2021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에서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2019년 8.2%에서 2021년 10.8%로 증가하였으며, 피해 유형은 사이버 언어폭력 > 사이버 명예훼손 > 사이버 따돌림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사이버 영상유포
채팅방, 게시판 등에 상대를 비방하거나 악성댓글, 욕설 등을 올리는 행위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 상대를 대화에 참여시키지 않거나 채팅방에서 퇴장을 못하게 하는 등의 행위	사이버 머니, 금품갈취형으로 주로 와이파이어 셔플, 게임머니 등 사이버 상의 갈취 형태의 괴롭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의 동의 없이 사생활 관련 개인의 신체부위나 각종 유해성 사진, 영상 등을 전송·유포하여 괴롭히는 행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이버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조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자녀(아이)를 보호하려면?

자녀(아이)의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사이버폭력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자녀(아이)에게 지속적으로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을 지도해주세요.

1 사이버 공간에 글을 올릴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도록 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상대의 얼굴 표정이나 감정을 직접 보지 않고 글과 이모티콘으로 등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글을 올릴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다시 확인하도록 지도합니다.

2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도록 합니다.
인터넷 게임이나 SNS를 하면서 느꼈던 부정적 감정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자녀(아이)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대화합니다.

3 사이버폭력을 당하거나 발견하면 보호자(학부모, 교사)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사이버폭력 상황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화면을 캡처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보호자(학부모, 교사)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4 개인정보 보호 방법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전 수칙을 알려줍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이름, 주소, 학교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도록 지도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 봅니다.

사이버폭력에 노출된 자녀(아이)에게 이렇게 지지해주세요.

자녀(아이)가 폭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당장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이야기할 준비가 되거나 편하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자녀(아이)도 사실을 이야기 하는 게 수직으로 되고 학부모(보호자)가 알게 되면 화를 내거나 걱정할까봐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빨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등 재촉하기보다 자녀(아이)가 편하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충분히 함께 공감하면서 말해준 것에 대해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그동안 힘들었을 자녀(아이)를 위로해주세요.

자녀(아이)가 그동안 겪었을 힘들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하고, 자녀(아이)의 의견과 이야기를 존중하여 신뢰감을 형성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안정감을 주어야 합니다.

자녀(아이)의 행동에 대한 어떠한 판단도 멈춘 채로 현재의 상태와 상황을 바라봐 주세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니냐?" 등 자녀(아이)를責備하거나 폭력의 원인을 자녀(아이)에게 돌리는 일은 지양하고, "그렇구나. 지금 기분은 어때냐?"와 같은 개방형 질문을 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질문을 통해 이끌어주세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부모가 주도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냐?",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좋겠냐?" 등 자녀(아이)의 욕구에 충분히 귀 기울이며 함께 해결해나가도록 합니다.

*출처: 김승혜 외(2021). 장난이 폭력이 되는 순간. 담당서무소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발대식 개최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은 학교와 지역사회에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주체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활동들을 전개하는 학생지원단입니다.

2022년 6월 17일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의 주최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에서 전국 32개팀 368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제2회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발대식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사이버폭력
신고 및 상담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안녕Dream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지원센터

<http://ms.she.naver.com/6REK3>

사이버1368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http://ms.she.naver.com/6W6K>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함께 실천하는 사이버폭력 예방,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대응 가이드’ 발행

신종 사이버폭력 등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교육부를 포함한 7개 정부 부처 6개 기관에서 참여하여 개발한 '함께 실천하는 사이버폭력 예방,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대응 가이드'가 2022년 2월 발행되었습니다.

가이드에는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상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를 통해 유아와 청소년 자녀(아이)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 진단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http://ms.she.naver.com/0W6K1>

가상공간에서 체험하는 학교폭력 예방활동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을 키우면서 학생들의 참여와 흥미를 높일 수 있는 메타버스 기반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PC나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 접속하여 사이버폭력 유형에 대한 퀴즈를 풀고, 스테이지에서 미션을 완료하며 자연스럽게 사이버폭력 예방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며, 2022년 시범운영에 들어 갑니다.



자녀(아이)의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부나 교육청에
제안(자료) 싶은
작품을 남겨주세요.



<http://ms.she.naver.com/0W6K1>

학부모 참여 이벤트
QR코드에 의견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기간
2022.6.13.~2022.7.15.



01 · 전문가 칼럼

뇌에 새겨지는 상처: 언어폭력



최지옥 교수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내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속상하고 화가 날 때 우리들은 누구나 저마다 무의식적으로 습관처럼 하는 말이나 행동이 있습니다. 기대나 바람이 좌절을 겪을 때 감정 조절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벌컥 낸다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위협적인 훈계를 하기도 하고, 비난으로 화를 풀기도 합니다. '참 한심하고 대책 없어 보인다'는 표정을 짓거나 한숨을 쉴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주고받는 마음의 상처들을 진료실에서 보고 들으면서, 과연 어릴 때 언어폭력과 같은 정서적인 경험이 실질적으로 뇌 발달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흔히 뉴스에서 관심을 끄는 신체적 학대 경험보다, 사실은 '언어적 폭력 경험'이 성인이 된 이후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화초리로 종아리를 맞아 생긴 멍은 자국도 보름만 지나면 없어지고 마는데, '단지' 말로 비난과 욕설을 들었다고 과연 뇌에 무슨 흔적이 남을까요?

그 궁금증으로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함께 관련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는 성장 과정에서 아무런 질병이나 사고, 학대, 신체적인 체벌 등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건강한 청소년들에게서 단지 마음의 상처가 되는 '말'을 듣고 자란 경험이 뇌에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 내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놀랍게도, 성장기에 상처받는 말들을 들으며 훈육을 받은 사람들의 뇌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뇌의 언어 회로에 상처가 남았고 언어성 기능과 언어 이해력의 저하를 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뇌의 감정조절 회로에도 상처가 남았고 우울감, 불안감, 신체화 증상들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어린 시절 부모(보호자)의 반복되는 잔소리와 비난의 말을 들을 때, 당시에는 아이가 귀를 닫고 감정을 무디게 해서 견뎌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대가로 뇌 발달의 과정에서 언어 회로와 감정조절 회로 발달이 미숙해져서 언어이해 혹은 우울, 불안에 취약한 뇌로 성장하여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체적인 아동 학대나 방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아이에게 습관적으로 말로 주는 상처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명확한 뇌과학적인 증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요? 우선, 언어폭력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보호자)는 자신의 감정 상태를 잘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동시에, 자녀에게 바른 언어 사용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아이들의 언어습관을 살펴보고, 잘못된 표현을 바로잡기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지도 방법을 고민하여 조금씩 실천해나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바르고 따뜻한 언어표현을 통해 소통할 수 있도록 학부모(보호자)가 도와준다면, 아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건강하게 평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02 ·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자녀(아이)의 대처 방법 지도하기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성장기에 학부모(보호자)로부터 상처받는 말을 듣고 자란 경험뿐만 아니라 학창 시절 또래관계에서 언어폭력에 노출되었던 경험도 불안과 우울, 적개심이나 정신적 증상 등 두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교육부의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언어폭력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언어폭력은 '친구가 싫어하는 별명을 계속해서 부르기', '소문 퍼뜨리기' 등 장난이라고 여기며 하는 사소한 말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실시한 언어문화 실태조사에서 초·중·고 학생들의 90.7%는 언어문화 개선을 위해 어른들의 모범이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이처럼 학생들의 언어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학부모(보호자)가 모범이 되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자녀(아이)의 언어 사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자녀(아이)에게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대처 방법을 지도해주세요.

상대방 입장 생각하기

단순한 장난이라도
상대방이 불편할 수 있음을
알려주세요.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기

놀림이나 조롱을 받을 때
'싫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도록 지도해주세요.

바른 언어 사용하기

욕설이나 비속어 등을
사용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기

화가 나면 하던 말이나
행동을 잠깐 멈추고 심호흡 등을
하며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알려주세요.

03 ·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자녀(아이)와의 대화 실천하기

지난 학부모 소식지 vol.4 학부모(보호자) 참여 설문조사에 따르면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자녀와의 대화법을 가장 많이 궁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 속 자녀(아이)와의 대화 사례를 살펴보고, 자녀(아이)가 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실천해보세요.

■ 자녀(아이)가 동영상을 보며 본인도 모르게 비속어를 따라하는 상황



1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관찰합니다.

TIP 판단이나 평가는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해주세요.



2 자녀(아이)의 말을 듣고 어떻게 느꼈는지 이야기합니다.

TIP 기쁨, 슬픔 등 감정 단어를 사용해주세요.



3 학부모(보호자)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바라는 점과 연결해서 말해줍니다.

TIP 자녀(아이)를 탓하지 말아주세요.



4 자녀(아이)가 해주었으면 하는 구체적인 언어 표현을 부탁합니다.

TIP 원하지 않는 것(예: ~하지마)보다 원하는 것(예: ~해주면 좋겠어)을 말해주세요.

언어폭력 예방교육 정보

학생언어문화개선주간(9월 4주~10월 2주)

학생언어문화개선



누리집 보기

학생언어문화개선 누리집에서는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언어습관 자기진단도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언어 문화개선 UCC/캘리그래피 공모전 및 교육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대국민 포럼 개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포럼 보기

2021년 8월 18일,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 등 사회 공동의 노력과 협력을 통한 "전사회적 사이버폭력 예방문화 조성 방안 모색"을 주제로, 실시간 온라인 대국민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워크숍 및 컨설팅 개최

2021년 8월 21일,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워크숍 및 컨설팅을 개최했습니다. 워크숍 및 컨설팅에서는 팀별 활동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활동 애로점 및 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은 학교와 지역사회에 학교폭력 예방효과를 알리고 안전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주체적인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어폭력 예방

표어(슬로건) 공모 이벤트

언어폭력 예방 표어(슬로건)를 만들어 주세요!

- 작성하신 표어(슬로건)를 QR코드에 입력해주세요.
- 이벤트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 5분을 선정하여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 공모에 참여해주시는 분들의 표어(슬로건) 중 선정된 표어(슬로건)는 다음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하기

이벤트 참여기간
2021.09.13. ~ 2021.09.30.

| QR코드 링크 주소 |
<http://m.site.naver.com/0QDMU>

아이를 향한 사랑 올바르게 표현해주세요

- 뉴스레터 제 16호 -

아이의 생각과 마음에 귀 기울여 주세요.

아이 스스로의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면

아이의 마음이 보입니다.



#사랑의 매는 없습니다

사랑하고 위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체벌해서는 안됩니다

2021년 민법상 징계권 폐지로 누구도 아이들을 체벌할 수 없습니다